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69 -
“아동·청소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단축’ 공약 발표

- 전 국민 중 초·고교 연령 청소년만 ‘3년’ 주기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관리체계 미포함으로 건강 데이터 관리 및 활용도 어려워
- 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 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6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주기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대비 건강검진을 확대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국민 건강을 더욱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세 미만 영·유아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은 현행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건강 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 어렵다. 40여만 명에 이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학생검진의 검진 항목은 성인 검진에 비하여 더 적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누적, 관리하는 국민 건강 데이터 중 아동·청소년 층의 건강 데이터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더 꼼꼼히 챙기고 국가가 전생애에 걸쳐 국민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공약했다.

먼저 학생 건강검진 주기를 성인과 같이 2년에 1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해,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국민 건강이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조치로 학령기 아이들이 건강하게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설명자료]

□ 학생건강검진 현황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영유아건강검진-학생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에서 학생 건강검진(초등학생~고등학생)만 제외되어 있음. (학생 건강검진 시기 : 초1, 4학년, 중1, 고1학년으로 3년 주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영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현재 학생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행 검진결과는 영유아건강검진부터 시작되는 국가 검진 체계에서 학생 연령의 검진 자료만 포함되지 않는 상태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검진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관련 국가 자산의 가치를 높일 기회를 잃고 있음
- 학생건강검진의 검진 주체, 항목, 결과 활용 등에서 학생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3년에 1회)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낮은 편임

□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

- 학생건강검진(교육부)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여가부)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편입
- 학생건강검진 주기를 일반건강검진(2년에 1회) 주기로 전환
- 학생건강검진을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완성